

# 정보보호·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






## 01 혁신 제품·서비스의 적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인증기간 획기적 단축

● 평가인력기관 확충, 시스템 자동화, 신규 기업 지원 강화 등으로 신청부터 판정까지 기간 대폭 단축 (각 인증별 평균 2개월 이내)

	CSAP	평가인력 추가, 평가기관 추가 지정(~6월)을 통해 인증절차 즉각 해소, 인증위원회 수시 개최 등으로 행정처리 기간 단축	평균	5개월	→	2개월
	ISMS	신청, 평가기관 지정, 점검 등 인증 절차 전반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 (기존 이메일우편), 불편·불필요한 시간 소요 감축	평균	5개월	→	2개월
	CC	시험인력 추가 투입, 인증 준비가 어려운 신규 신청기업에 제출문서 가이드, 템플릿, 사전준비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등 지원 하여 소요기간 단축	평균	5개월	→	2개월
	IoT보안	인증받은 제품 중 단순 디자인만 변경된 파생제품(신청의 30%)에 대해 적용 하는 파생모델 제도(23년 시범) 본격 적용·확산	평균	15일	→	1~2일
	GS	3개 인증기관 평가 분야 확대 (5개→10개), 적극적 시험 이관 등 인증 수요 분산 및 시험인력 충원 등을 통해 소요기간 단축	평균	3개월	→	2개월


## 02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인증제도를 활용하도록 수수료 절감

●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과 경량화된 인증 적용으로 기업의 수수료 부담 획기적 절감 (각 인증별 5~20백만원 수준)

	CSAP	중견·중소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, '24년 수수료 지원 예산규모 및 지원비율 확대(50%~80%)	중소기업 기준 80% 지원 (예: SaaS 표준)	2,900만원	→	약 600만원
	ISMS	매출액 300억 미만 중소기업 등에 평가항목(80개→40개)을 합리화한 ISMS 간편인증 도입(7월말~, 85개사)	수수료 비용 50% 절감	1,100만원	→	약 500만원
	CC	민간전문가, 인증/시험기관, 산업계 등 연구반을 구성하여 근본적 수수료 절감방안 검토(~8월)	신규 신청기업 시험 수수료 50% 이상 감면	5,000만원	→	2,000만원
	IoT보안	파생모델 제도 적용 제품에 대해 인증 절차 개선과 더불어 수수료도 대폭 감축		600만원(라이트), 1,300만원(베이스)	→	70~140만원
	GS	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대상 확대(약 200만원 감면)로 비용부담 경감 업데이트 (경미한 변경) 재인증 비용 전액 면제 및 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 50% 감면		1,400만원	→	<정보보호인증제품> 약 1,200만원 <재인증 제품> 약 0~700만원

## 03 정보보호SW품질 수준은 유지하면서, 불편·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히 개선

● 매년 적용하는 사후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고(CSAP), 유효기간 합리화(ISMS) 및 재인증 등 절차 간소화(CCSG), 新제품(SaaS)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정비 추진(GS)

	CSAP	사후평가(SaaS)는 서면으로 전환하되, 샘플링 현장점검(무료) 도입 다만, 보안수준 확보를 위해 2년차 사후평가는 현장점검	사후평가 간소화	현장(유료)	→	서면(무료)
	ISMS	유효기간 확대(3년→5년) 및 인증 후 3년간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서면으로 전환	유효기간 조정	3년	→	5년
	CC	취약점 점검방식, 유효기간 연장(5년→5년) 평가 일부 서면화 등을 비롯한 시험절차 전반을 점검하고, 인증기준 완화 및 기업부담 경감 방안 마련(~8월)				
	GS	SW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제공(6월) 국제 표준 반영,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GS인증 기준 정비를 통해 SaaS 특화 품질인증 방안 마련(6월)				